

6월의 기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4.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DCEM 성회안내

2017년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Empowered 21성회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증거하실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끼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오사카 순복음교회(정대원목사),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김태승,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오주봉, 원소선,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믿음의 세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와 교제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현실에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리면 안됩니다. 환경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마음 속에 생각을 통해 믿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생각을 통해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버트 솔러 목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는 상상력이다”라고 말했으며,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한 사람의 인생은 그의 생각에 따라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랠프 왈도 에머슨도 “사람이 온종일 품고 있는 생각은 바로 그 자신이 된다”라고 말하며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그대의 생각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세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마음의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과 목표를 갖고 그것을 생각하며 바라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목표를 두고 꿈을 꾸고 그것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모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하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지저스페스티벌 순복음동경교회 40주년 기념 성회 일본 일천만구령운동 선교열매 맺은 '성령 축제'



“2천년 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DCEM이 주관하고 순복음일본총회와 순복음동경교회가 공동 주최한 '지저스 페스티벌 순복음동경교회 40주년 기념 성회'가 지난달 5월 28~30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를 강사로 초청해 동경 신주쿠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일본 일천만구령운동의 전초기지인 순복음동경교회 40주년을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린 이번 성회에는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순복음 선교사들이 대거 참석해 일본 선교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성령 대축제의 장이었다.

성회 첫째 날 우창희 목사(순복음야마토교회)의 소개로 등단한 조용기 목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당부했다. 통역은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DCEM 사무총장, 순복음동경교회 담임 목사)가 맡았다. 조용기 목사는 “예수님을 따라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면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아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해 말했다.

이어 오오가와 츠쿠미치 목사(야마토갈보리채플), 테라다 후미오 목사(일본 오순절협의회 회장), 김일 목사(순복음후쿠오카교회)가 순복음동경교회 40주년을 축하하는 축사를 전했다. 갈보리채플 오오가와 츠쿠미치 목사는 축사를 통해 “조용기 목사님은 일본의 은인”이라면서 “일천만 구령운동은 일본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전해줬다”고 말했다. 일본 오순절협의회 의장이자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테라다 후미오 목사는 “41년전 개인적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을 방문해 은혜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작년에 이영훈 목사의 초대로 일본 목회자 20여 명이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29일에 성회를 인도했다. 이영훈 목사는 2001년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2002년 교회 25주년을 기념하여 지금의 성전을 헌당할바 있

다. 성도들의 환영 속에 등단한 이영훈 목사는 '부흥'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일본어로 인사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40년 전 조용기 목사님께서 일본 일천만구령운동을 시작하셨다. 조용기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 일본 전역에 큰 교회가 서고 부흥이 일어났다”며 “교회는 부흥되어야 하고,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씀 후 김유동 목사(순복음나고야교회)가 축사를 전했다.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는 말씀 후 참석자들과 함께 '주어 삼창'을 외친 후 일본 일천만구령운동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그리고 신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5월 29일 오전에는 힐튼호텔에서 일본 전역에서 참석한 목회자들과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조용기 목사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자들은 스승을 응원했다.

순복음동경교회 40주년을 맞아 개최된 지저스페스티벌은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일천만구령운동을 통한 일본 교회의 부흥이라는 희망을 다시 꿈꾸게 했던 성령 축제의 현장이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드온의 삼백 용사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해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원 주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미디안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1. 하나님의 표징을 간구함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을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다'고 말하며 '하나님, 저를 선택하신 뜻을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내가 양털 한 뭉치에 들판에 놓고 하루저녁 자는데 이슬이 양털뭉치에는 내리되 그 주변에는 이슬이라고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택하셨다고 확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양털을 들에 내놓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서 물이 질퍽질퍽 한데 그 주변에는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 한 번 더 용서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양털을 들에 내놓을 테니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확증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양털을 들판에 놓고 자고 난 다음 아침에 나가니 양털은 보송보송하였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비와 같이 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선택함을 입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표징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가 확실히 내게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얻으면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다는 것, 굉장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중대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 없이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 것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출발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한 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뭇이 다가왔을 때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

“...(생략)...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핏을 것 같이 혀로 물을 핏을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핏을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핏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사기 7장 1~7절)

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도 빼앗기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로를 가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지 않고 인간적 생각으로 도피했다가 큰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가 마음속에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만나야 방향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약속 없이 자기 마음대로 방황하다가 큰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기드온처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2. 이스라엘을 위해 싸울 자를 모집함

기드온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미디안과 싸워야 될 것을 결정 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무려 3만 2천명이나 모 여듭니다. 그러나 이미 적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3만 2천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너무 많다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무서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워 떠는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와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다가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무리 중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1만명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만명을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물가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 전투 태세를 갖춘 채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요, 다른 한 부류는 두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태도를 봅니다. 물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손으로 핏아먹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자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이들로서 하나님이 신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를 모집하실 때, 두 번째 기준은 목이 매우 마른 상황에서 물을 마시는 자세였습니다. 개가 핏을 것 같이 손으로 물을 움켜 핏는 자들은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항상 깨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믿은 사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한 뒤에 늘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자인 벵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거둬

기드온은 싸울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저녁에 해질 때쯤 그의 부하와 함께 적군 진지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고 기드온은 그 부하와 함께 13만 명의 적군 포진하고 있는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진영 근처에 내려갔을 때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야, 나 이상한 꿈을 꾸었다.” “무슨 꿈을 꾸었지?” “아, 꿈에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와 미디안 진영을 탁 덮치더라. 그러니까 천막이 무너지면서 온 사람들이 돌연 고향을 치고 큰 전쟁이 벌어진 것을 보았다.” “그건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주는 말인데. 그 보리떡은 기드온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들은 절단이 날 것이다.”

그 후 기드온과 부하는 본진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적진 가까이 와서 기드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를 탁 깨치니까 불이 확 붙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 모두 다 항아리를 깨고 외쳐라. “야훼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렇게 고향을 치니까 적군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군인이고 누가 연합군의 군인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치고 받는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은 번 두리에서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고향을 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고향에 더 흥분되어서 적군들이 서로 찢러 죽이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마침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여 일을 하면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성경말씀을 읽고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지혜가 되고, 총명이 되고, 모략이 되고, 재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길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귀중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크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저스페스티벌 순복음동경교회 40주년 기념 성회 이모저모



1977년 복음의 불모지와 다름없던 일본에 '일천만구령운동'을 외치며 순복음동경교회를 세운지 40년째를 맞아 지난 5월 28일과 29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동경 신주쿠 문화센터에서 말씀을 전했다.

순복음동경교회 담임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DCEM 사무총장, 순복음동북아일본총회장)는 순복음동경교회를 축복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5월 29일에는 감사 인사 대신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한국어와 일본어로 부르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이번 성회에는 순복음동북아일본총회 중



경총회장 김유동 목사(순복음나고야교회), 김일 목사(순복음후쿠오카교회), 안양원 목사(우즈노미야순복음교회), 우창희 목사(순복음야마토교회), 배호성 목사(순복음마쓰도교회), 신용국 목사(순복음센다이교회), 세노오 미즈키 목사(순복음나리타교회), 엔토 타카시 목사(순복음 도쿄 후나보리교회) 등 일본 총회 소속 순복음 선교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김종복 장로(4차원연합회장), 신범섭 장로(인사위원장), 이강우 장로(동북아선교회장) 등이 성회에 참석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일본 선교는 1970년

대부터 시작됐다. 1971년 故 최자실 목사가 일본에서 성회를 인도한 후 1977년 최자실 목사와 조용기 목사가 동경을 중심으로 부흥성회를 인도했다. 일본 전체 인구 중 10%에 해당되는 일천만명을 복음화하겠다는 '일본 일천만구령운동' 프로젝트이다. 1978년 일본선교회가 발족되어 일천만구령운동에 힘을 쏟았다.

순복음동경교회는 2014년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해 제2의 부흥을 꿈꾸며 일본 일천만구령운동은 지금도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순복음야마토교회 선교 20주년 성회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일본의 공휴일(춘분의 날)인 지난 3월 20일, 제자인 우창희 목사가 시무하는 순복음야마토교회(에비나시 소재)를 방문하고 말씀을 전했다. 이번 성회는 스승인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주창한 '일본 1천만 구령'의 사명을 위해 우창희 목사가 야마토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선교 20주년을 기념하는 축복성회였다.

조용기 목사는 성회를 주최한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와 함께 순복음야마토교회에 도착해 성도들과 어린 화동의 환영을 받았다. 그

리고 한달 여 동안 금식기도로 성회를 준비하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 온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의 구원'(막 5:25-34)을 주제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본문 내용은 혈루증으로 고통 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을 만질 때 일어난 기적 사건이었다. 조용기 목사는 "마귀는 우리에게서 기쁨, 소망을 앗아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케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소망이 되신다. 혈루증으로 절망에 처한 여인은 예수로 인해 삶의 기쁨을 회복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전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로운 피조물이 되고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우창희 목사와 성도들에게 심어줬다.

순복음야마토교회 담임 우창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성회에는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순복음동경교회), 김유동 목사(순복음나고야교회) 등 순복음동북아일본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참석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또 조용기 목사와 오랜 친분이 있는 오오가와 츠구미치 목사(야마토갈보리채플)가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누구보다 이날 성회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이들은 순복음야마토교회 성도들이었다. 순복음야마토교회 창립부터 출석했던 배명진 집사는 "전 성도들이 함께 금식기도하며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오늘 설교처럼 이웃에게 주님으로 인한 기쁨,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도가 되겠다"고 말했다. 순복음야마토교회 우창희 목사는 "이번 성회가 순복음야마토교회에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지역 성시화를 통해 '일본 1천만 구령' 전진기지가 되겠다"고 밝혔다.